드라마 '황금정원' 마친 25년차 연기자 정영주

"내가 정영주야! 그 자부심으로 달려왔죠"

뮤지컬은 내 인생…나의 시작과 끝
드라마에 출연할 줄은 상상도 못해
이왕 온 기회…한번 보여주자 다짐



뮤지컬과 드라마를 종횡무진 오가는 연기자 정영주는 올해 데뷔 25주년을 맞았다. 그는 "30주년에 디너쇼를 열 계획도 세웠다"며 밝게 웃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연기자 정영주(48)는 연기를 한 지 올해로 딱 25년이 됐다. 1994년 뮤지컬 '나는 스타가 될 거야'로 데뷔해 '명성황후' '넌센스' '맘마미아' 등 공연 작품이 40여 편에 이른다. 2016년 뒤늦게 시작한 드라마도 꾸준히 편수를 늘려가고 있다. 단 한 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경력을 채웠지만, 정작 그 스스로는 "아직 설익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는다.

정영주는 26일 MBC 주말극 '황금정원'을 끝냈다. 그는 이를 "또 하나의 도전"으로 표현했다. 30부 분량이 넘는 주말드라마를 처음 소화한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극중 딸을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살벌한 악인을 연기했다. 2017년 tvN '부암동 복수자들'이나 4월 종영한 SBS '열혈사제' 속 '야망형 악녀'와도 사뭇 다른 표독스러운 연기를 선보였다. 모두 안방극장을 변신의 새 무대로 삼은 결과물이다.

2016년 첫 드라마 tvN '시그널'에 짧게 출연한 이후 1년에 4~5편의 드라마에 출연했다. 2018년에는 tvN '나의 아저씨'와 MBC '내 뒤에 테리우스' 등 무려 6편을 소화했다. "드라마에 출연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그는 "이왕 기회가 온 만큼 '내가 정영주야', 한 번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시행착오도 겪었죠. 무대 위에서처럼 촬영현장에서도 카메라가 아닌 제작진을 둘러보며 연기한 적이 있고요.(웃음) '황금정원'으로는 '왜 혼자 연극 하냐'는 댓글도 받아봤어요. 시청자에게는 내 발성이 낯설 것 같단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점점 카메라 앞이 편해지는 걸 느껴요. 그러다보니 이젠 작품이나 캐릭터에 대한 고민도 커졌어요. 25년 만에 '새로운 고민'이 생긴 셈이죠."

예능프로그램에도 종종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5월 한 프로그램에서 6년 전 이혼해 홀로 키우는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게 꺼냈다. 정영주는 "아들에게 사전 허락을 다 받았다"면서 "은근히 예능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언급해주는 걸 좋아하는 눈치"라며 웃었다. 그는 아들 친구들과도 함께 어울리는 '친구 같은' 엄마다. 비결은 "동등한 입장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엄마가 연예인이라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그래도 우리 엄만데?'라며 안 불편하다고 말해주는 아들이 고맙다"고 털어놨다.

그런 그가 있기까지 뮤지컬은 두터운 버팀목이 됐다. 정영주는 "드라마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나의 '시작과 끝'"이라며 뮤지컬에 진한 애정을 드러냈다. 뮤지컬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배곯기 십상"이라며 반대하던 아버지도 해외 공연을 떠나는 그에게 "네 길인 것 같으면 끝까지 가 봐라"며 독려했다.

하지만 연기 외길은 고통스러운 순간의 연속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늘에 대한 애착"으로 버텼다.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쌓아 지금처럼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만약 제게 엄청난 각오나 결심이 있었다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들에만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느새 25년이 지났네요.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에 나오는 걸 보고 또래 시청자들이 용기를 얻는 것을 보면 기뻐요. 도전을 계속 하는 이유죠. 데뷔 30주년엔 디너쇼도 할 거예요. 근사한 공연을 선사할 테니 오래 지켜봐주세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양극화 등 계층 문제를 다룬 '기생충'(왼쪽 사진)과 '조커'가 잇따라 흥행 성과를 내고 있다. 내년 2월 미국 아카데미상 주요 후보로도 꼽힌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워너브라더스코리아

잘 나가는 '기생충' '조커'…오스카 정조준

'기생충' 흥행 수입 1억 달러 돌파
'조커' 역대 북미 R등급 최고 흥행

양극화와 계층의 이슈를 다룬 두 영화가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북미에서 호평 받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29일 국내 누적 500만 관객을 동원한 '조커'다. 내년 2월 아카데미 시상식 맞대결까지 예고하고 있다.

18일 북미에서 개봉한 '기생충'은 29일 현재 129개 상영관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미국 박스오피스모조에 따르면 '기생충'은 전 세계 흥행 수입 1억 달러(1160억 원)를 돌파했다.

현지 관객에겐 해외 영화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성과라는 평가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30일 "긍정적인 반응 속에 북미 상영관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커'의 열기도 뜨겁다. 북미에서 R등급(17세 미만이면 보호자 동반)의 제한적 환경을 딛고 27일 기준 2억7793만 달러(약 3248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 역대 R등급 영화 최고치다. 전 세계에서도 9억5203만 달러(약 1조1228억 원)를 넘어섰다. 배급사 워너브라더스코리아는 "중국에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둔 기록"이란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기생충'과 '조커'는 장르도, 소재도 다르지만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계층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각기 방식으로 풀어냈다. "양극화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이슈"라는 봉준호 감독의 언급처럼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도 "영화는 항상 당대 이슈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을 배경으로 극심한 빈부갈등과 불평등 속에 원하는 꿈에서 한 발걸음씩 멀어진 주인공 조커를 통해 현실이 낳은 악당의 탄생을 그렸다. 물론 주인공의 선택이 폭력과 살인으로 귀결된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기생충'과 '조커'는 각각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베니스 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의 영광을 안으면서 올해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흥행까지 일구면서 내년 2월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영화매체 버라이어티는 최근 두 작품을 '오스카 경쟁 10편'에 꼽아 넣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장근석

장근석 맞춤형 이벤트
팬들도 선행으로 화답

연기자 장근석과 팬들이 뜨거운 애정을 주고받고 있다.

장근석은 지난해 7월 입대하면서 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한 '맞춤형' 이벤트를 올해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팬들은 이에 화답하며 선행에 나서고 있다.

장근석은 12월4일 도쿄, 12일 오사카에서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는 유닛 팀명인 팀H의 공연 영상을 선보인다. 파티 형식으로 팬들과 즐기는 콘셉트다. 이에 앞서 장근석은 올해 초부터 입대 전 팬들과 함께 보낸 8년의 세월을 돌이키고 있다. 투어 하이라이트 장면을 약 30분 분량으로 편집해 일본 20개 도시에서 34회 상영했다. 또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해 자신이 작품에서 직접 입은 의상 등을 전시관 형태로 소개했다.

이에 보답하듯 팬들은 장근석의 이름을 내세워 꾸준히 선행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팬들은 실명 위기에 놓였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에 후원금으로 205만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기부금을 전해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빅마우스

박신혜, 12월 팬미팅 수익 기부 약속



박신혜

연기자 박신혜가 팬미팅을 열고 수익금을 기부한다. 소속사 솔트엔터테인먼트는 30일 "박신혜가 12월8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예스24홀에서 팬미팅 '보이스 오브 앤젤(Voice of Ange)l'을 연다"고 밝혔다. 박신혜는 전반적인 기획과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번 팬미팅의 수익금을 국내외 소외 아동들을 위해 내놓을 계획이다. 박신혜는 현재 영화 '#얼론'(가제)을 촬영 중이다.

(여자)아이들 소연, 롤드컵 개막 무대



소연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소연이 지난해에 이어 롤드컵 결승전 개막식 무대에 나선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30일 "소연이 11월30일 프랑스 파리 아코르호텔 아레나에서 열리는 롤드컵 결승전 개막식에서 베키 지, 케케 파머 등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 신곡 'GIANT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소연은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같은 무대에서 공연한 바 있다. 롤드컵은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e스포츠 대회다.

'주전장' 상영 취소에 日 영화계 반발

일본의 한 영화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 상영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개막한 일본 가와사키 신유리 영화제가 '주전장' 상영을 취소했다. 영화제 측은 '주전장'이 일부 출연자에게 피소됐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배우 이우라 아라타 등 관계자들이 비판했다. 일부 영화제 작사도 상영 취소에 항의하며 자사 작품의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딸 입양 진태현 "관심·응원에 감사"



진태현

최근 딸을 입양한 연기자 진태현이 팬들의 응원에 화답했다. 진태현은 30일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감사하다"면서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도 성공, 명예, 잘남, 뛰어남보다 사랑, 나눔, 배려, 책임, 낮음을 먼저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아내인 연기자 박시은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저희 둘이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딸도)잘 따라오고 잘 살아낼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2015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28일 10대 후반의 딸을 입양한 사실을 공개했다.